

코로나19가 중국 유연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리푸쥘(李付俊)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취업창업연구실 부연구원)
모룽(莫榮)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부원장)
바오춘레이(鲍春雷)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인적자원연구실 부연구원)
천윈(陳雲)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 취업창업연구실 부주임)

■ 머리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2020년 11월 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미 3,341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분야의 개별 사건에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소비심리 및 수요를 통해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용, 특히 비정규직 고용에 큰 충격을 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4억 명의 비정규 부문 노동자가 소득상실과 심각한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생산 조업이 순조롭게 재가동되면서 경제회복과 고용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유연고용 인력의 업무 재개를 저해하던 요인이 해소되었고, 특히 방역·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일부 프리랜서 업무가 재개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무역과 산업사슬을 통해 중국의 산업 재가동 및 일자리에 또다시 충격을 주면서 중국 유연고용 인력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충격이 컸던 업종에 대해 한층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연고

* 이 글은 2020년 12월 18일 한국노동연구원(KLI),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및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CALSS)의 공동주최로 온라인 개최된 「제18차 동북아 노동포럼」에서 발표된 필자의 발표문이다.

용에 대한 수요부족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가 유연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가한 충격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재가동이 지체되고 있으며 방역·통제조치의 강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기업의 생산수요가 줄고 시장 전반의 소비심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유연고용 인력이 받는 충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매출 하락에 따른 고용수요 감소에 가장 먼저 충격받은 유연고용 인력

코로나19는 우선 경제수요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어 관련 업종의 기업매출이 하락해 고용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기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임시직·파트타임·계절적 고용·용역·파견·외주 노동자 등 유연고용 인력의 취업기회가 감소했다. 중국 대다수의 대외무역기업에서는 채용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부 핵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식 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아 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견직이나 임시직 등의 유연고용 인력은 고용수요가 급감한 동시에 기능 수준과 취업문턱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취업기회가 감소하여 장기적인 실업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방역·통제 우선 조치에 영향받은 일부 유연고용 인력의 업무 재개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역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재확산 방지를 위해 여전히 엄격한 방역·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 국내관광, 요식업, 숙박업 등 비교적 큰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대와 다르게 보복성 소비양상이 나타나지 않아 코로나19 기간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년 수

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국관광연구원(中國旅游研究院)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文旅部數據中心)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국경절과 중추절 8일 연휴기간의 중국 국내관광객 규모는 총 6억 3,700만 명으로 전년대비 79%를 회복했고, 국내관광 매출은 4,665억 6천만 위안(한화 약 77조 8,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9%를 회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연고용 인력이 기존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취업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실업에 직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 코로나19 상황 속 유연고용의 역할 증대

안정적 고용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는 유연고용

2020년 1분기 이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충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유연고용이 가진 시공간적인 탄력성이 나름의 장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클라우드소싱, 소셜네트워크 경제, 공유경제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의 발전이 눈에 띈다. 예컨대 비대면 배송, 격리경제(Qconomy)¹⁾, 라이브커머스²⁾ 등 새로운 경제활동이 속속 등장했고, 테이크아웃 배송기사, 디디³⁾ 운전기사 등 역시 코로나19 방역 및 생산 재가동 기간에 비교적 두드러진 역할을 발휘했다. 특히 2020년 1분기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각 부처에서 수차례 공문을 통해 유연고용의 성장을 여러 경로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연고용 분야의 발전 공간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다. 또한 팬데믹 상황은 중국의 고용유지와 안정 및 확대 측면에서 유연고용이 더욱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1) 편집자 주: Qconomy(큐코노미 또는 격리경제)는 Quarantine(격리)과 Economy(경제)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격리 및 봉쇄가 일상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외부 접촉을 꺼려 대면소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2) 편집자 주: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는 Live Streaming(라이브 스트리밍)과 E-commerce(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중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3) 편집자 주: 디디(滴滴)는 중국의 대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이다.

유연고용 분야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

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2판(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2nd Edition)」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실업 증가 외에 더 큰 타격은 이들의 소득감소 또는 소득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타격이 가장 심각하여, 이들 국가에서 비정규직의 소득 손실이 70% 이상에 달하며 소득 격차 역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도경제모니터링센터(CMIE)의 월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2020년 4월 실업률이 전월 8.7%에서 23.5%로 급증했다. 인도에서는 거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데, 약 4억 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빈곤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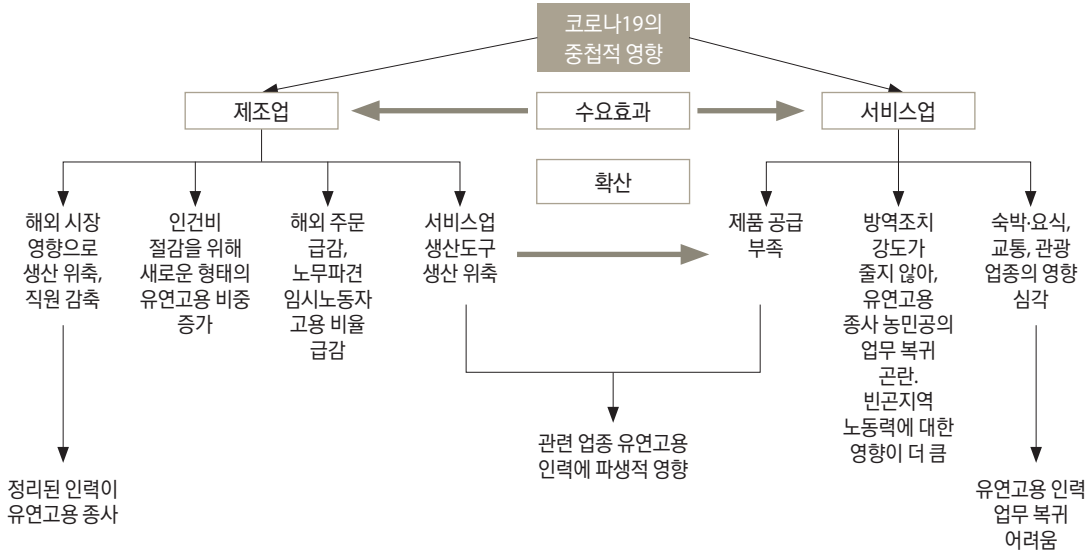
팬데믹 양상과 달리 중국은 2020년 4월부터 지속적인 경제 재가동 과정에 진입해, 규모이상이 기업(規模以上企業)⁴⁾의 평균 공장가동률이 95%를 넘었고 농민공 등 주요 노동자의 도시 복귀 및 조업 재개 모두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비록 코로나19가 중국 유연고용 분야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고 있지만, 생산 재가동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회복 양상과 중국의 저축률이 세계평균보다 여전히 20%p 정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유연고용 인력이 받는 타격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용형태의 발전이 다양한 유연고용 모델을 제공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코로나19가 중국 유연고용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방역·통제조치의 일상화는 수요효과를 통해 업종별 유연고용 인력에 영향을 미치며, 유연고용의 규모와 질에 이중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로 유연고용 인력의 취업기회 감소, 업무 재개의 어려움, 경쟁압력 증가, 일자리 질 하락, 사회

4) 편집자 주: 중국 통계학 용어로, 연간 매출액 2천만 위안(한화 약 33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그림 1] 코로나19가 유연고용 규모에 미치는 중첩적 영향



자료 : 필자 작성.

보장 중단 위험 확대 등의 영향이 있다.

업종별 유연고용 인력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첫째, 대외무역과 산업사슬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은 관련 기업의 유연고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해외 주문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대외무역형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수많은 무역거래가 취소되면서 중국 수출가공제조업은 대외수요 약화와 주문 감소에 직면하여 산업 가치사슬을 통해 관련 기업에 영향을 미쳤으며, 파견직과 임시직 등 유연고용 인력의 실업 위험이 증가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의 확산효과에 따라 더 많은 업종과 직업이 충격을 받았는데, 특히 유연고용 위주의 자영업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 중국 서비스업은 제조업 다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관광업, 요식·숙박업 등 사람들의 모임과 이동에 의존하는 업종은 거의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들 업종은 유연고용 위주의 자영업 경제가 성장해 왔던 업종이다. 2018년에 실시한 4차 경

제센서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3차 산업 가운데 교통운수·물류 및 우편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주민서비스·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의 5대 업종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7.3%에 달하며, 이 가운데 도소매업 인력이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또한 유연고용 인력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장기간 섯다운이 이어진다면 자영업 부문의 유연고용 인력은 빈곤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관광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관광산업사슬에 속한 유연고용 인력이 코로나19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7,500만 개의 여행업계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2020년 글로벌 관광산업은 2조 1천억 달러(약 2,229조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아태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각해 4,900만 명의 관광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업계 손실도 거의 8,000억 달러(약 8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⁶⁾ 중국 관광업의 유연고용 인력은 주로 숙박 제공, 관광가이드, 개인상점 운영 형태로 존재한다. 이미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국내 숙박업이 글로벌 관광업 침체로 또 한차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도 여행객이 가져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 미래 경제성장의 불확실성 및 소비시장의 피로도가 축적됨에 따라 숙박업계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세계 최대의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중국 서비스가 전년동기대비 96% 감소했다. 윈난성(雲南省) 리장(麗江),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등지의 숙박업 종사자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넷째, 온라인 배송인력과 온라인 예약차량 기사들이 잇달아 업무에 복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사 1인당 배송 및 예약의 규모가 하락세이며 노동조건의 질도 하락세에 있다.⁷⁾ 코

5) 王震, 『新冠肺炎疫情冲击下的就业保护与社会保障』, 中国社会科学网.

6) 人民日报(2020.4.3), 「数据来源: 全球旅游业面临疫情大考」.

7)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및 예약차량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들 업종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쟁압력이 커짐에 따라 주문의 질과 양이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대거 온라인 예약차량이나 음식배달 등의 유연취업 일자리로 이동하면서, 유연취업자가 양적으로 늘어났다. 이들 개개인이 받는 주문건수는 코

로나19의 영향은 요식업, 교통운수업 등에서 특히 컸으며, 온라인 배송인력과 온라인 예약차량 기사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한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중국 내 코로나19 영향이 감소하면서 현재 온라인 배송인력과 온라인 예약차량 기사의 업무가 재개되었고 이는 중국 국내 생산 재가동 속도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질소득 현황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국내 소비수요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특히 코로나19가 교통·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예약차량 업종에 종사하는 유연고용 인력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주문이 질적 및 양적으로 하락세이며 소득 수준은 예년의 평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디디 운전기사에 따르면 현재 차량 콜은 주로 시내 통근 중심이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고액 콜(예: 공항 환송 및 장거리 콜)은 비교적 드물어 수익이 여전히 낮다고 한다.

유연고용 인력의 직업안정성 감소 및 고용불안정 확대

코로나19 충격은 유연고용 인력의 직업안정성을 악화시키며 고용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수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유연고용 인력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관련 시장의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연고용으로의 대규모 인력 이동이 기존 유연고용 인력의 경쟁압력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소득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 위주 기업의 고용수요가 한층 더 압박받고 산업사슬을 통해 전후방 산업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파견직 등 유연고용 인력 일자리의 질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한층 더 심각해진 유연고용 인력에 대한 사회보장문제

정규직에 비해 유연고용 인력은 소득, 사회보장, 노동권의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

나19 이전보다 줄어들어, 이전에는 하루에 20~30건이었던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10여 건에 불과하다.

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일정 비율로 임금을 줄이거나 사회보험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유연고용 인력의 경우 코로나19의 충격이 소득 중단, 빈곤으로의 전락, 생계곤란 등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사회보험 체납률이 그 외 고용형태의 노동자보다 현저히 낮으며, 파견 노동자와 비(非)전일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체납률이 가장 높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회보험 납부상황이 영세기업보다 훨씬 양호하다.

■ 맺음말 : 대책 제안

첫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맞서 중국은 일자리 보호, 일자리 안정 및 고용촉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영세기업과 자영업은 고용흡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이라는 주요 채널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소규모 점포 대상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즉 영세기업과 소규모 점포를 활성화하여 시장 유연성을 키우고 새로운 업종의 유연고용 인력이 직업훈련이나 보조금 등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고용형태에 취약한 정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일자리 안정 측면에서 유연고용이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공유직원(共享用工)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새로운 고용형태는 사회 각계가 새롭게 주목하는 대안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노무관리 혁신모델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보장 법률·법규의 개정을 조속히 연구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의 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징에 걸

8)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중국의 고용형태인 공유직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및 직장 폐쇄 등으로 발생한 유휴 인력을 온라인 배송, 음식배달, 방역물품 생산 등 수요 폭증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잠시 빌려 오는 것이다. 이는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기업, 실직 위험에 처한 노동자, 수요 급증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가능한 모델로 꼽힌다.

맞은 비표준적 고용관계를 제정하고 새로운 고용형태를 위한 다원화된 노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간, 휴식시간, 산재인정 및 노동쟁의 등에서 노동자 권익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훈련의 저수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 침체뿐 아니라 중국 경제 발전에도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직업훈련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유연고용 인력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정책 마련과 교육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직업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노동집단의 기능 축적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다원적 경제성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 훈련내용, 훈련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연고용 인력 이직에 적합한 새로운 직업을 적극 육성하고, 직업교육과 기능 인정을 결합하여 이에 적절한 직업 명칭과 대우를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유연고용 인력에 적합하도록 사회보장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유연고용 인력의 업무 특징과 실질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단계별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편리한 납부와 이전, 계산 및 휴대가 가능한 사회보험 기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회보험 납부방식을 확립하여 ‘인터넷 플러스 인력자원 사회보장(互联网+人社)’⁹⁾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플랫폼 앱을 활용하여 유연고용 인력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연고용 및 새로운 고용형태에 속한 이들에게 고용 및 사회보장 정책을 홍보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플랫폼 데이터와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노동자 보험보장 기제와 모델을 혁신하고 유연고용 인력에 대한 보장 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고용과 경제 두 가지 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KL1**

9) 역자 주: 중국의 각종 산업에 인터넷(온라인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 중 ‘인터넷 플러스 정부서비스’의 일환으로, 인력자원 사회보장 분야에서 행정 간소화, 권한 위임, 서비스 최적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수준 및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